



그림 3-3. ‘홍로’, ‘감홍’사과에 발생한 갈색무늬병 이병엽율 조사결과 (2014년, 군위군)

갈색무늬병의 발생은 사과나무의 조기낙엽을 일으켜 미성숙과 생산뿐만 아니라 사과나무 수세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주요관리 병해이다. 따라서, 갈색무늬병의 발생은 차년도 사과나무 생장에도 큰 영향을 끼치므로 관리가 필요하며, 낙엽된 병든 잎에서 월동하고 차년도에 초기감염원이 될 수 있으므로 낙엽된 병든 잎을 수거하여 소각하거나, 적절한 동계방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.

‘홍로’, ‘감홍’사과에 발생한 탄저병은 8월 초순까지 모든 나무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 발생이 미미하였다(그림 3-4). 하지만 8월 11일 조사 이후 다음 조사일자인 8월 29일 사이 11회 살균제 살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로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였다. 그 발생비율은 4%에 불과하였으나, 수확기가 가까웠던 ‘홍로’사과의 상품성에 피해를 끼쳤다. 이 후, 다음 조사시기인 9월 11일에는 이미 ‘홍로’사과는 수확한 상태라 더 이상 병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.

‘감홍’사과의 경우 홍로와 마찬가지로 탄저병의 발생이 8월 하순까지 없었으나, 9월 11일 조사에서 4%의 이병과율을 보였다. 이후 10월까지 ‘감홍’사과에서는 탄저병으로 인해 2~3%의 이병과율을 보였다. 9월 초순에 비해 9월 하순 탄저병 이병과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9월 11일 탄저병 이병과율 조사 후 조사대상 나무에서 감염된 탄저병 과실을 제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.